

광주송정역 확장 공사업체 법정관리...낙찰 취소

국가철도공단 하반기 재공모...2029년 완공될 듯

현재 5755㎡규모 5024㎡ 증축 연면적 1만779㎡로

공사업체를 1년여 만에 가까스로 선정해 기대를 모았던 ‘광주송정역 사 확장’이 업체의 법정관리로 인해 취소됐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송정역사 증축 공사 업체로 선정된 A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낙찰 취소 결정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하반기에 공사 업체 재선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 업체가 취소되면서 광주송정역 증축은 2029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송정역 증축은 광주의 관문인 송정역 대합실 등을 2배 규모로 늘리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은 설계까지 마치고 지난해 1월부터 공사업체 선정에 나섰다.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3차례 입찰에서 공사업체를 찾지 못했으며 공모 수준을 낮추고 입찰금액을 33억원 증액하며 재입찰을 시도했지만

2차례나 무위에 그쳤다. 국가철도공단은 규정 등을 완화하고 6번째 입찰을 시도해 컨소시엄 형태의 A건설사 등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낙찰했다. 하지만 공사업체가 취소되면서 송정역사 확장은 1년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정역사는 이용객 증가로 인해 확장이 추진됐다. 현재 5755㎡규모의 역사에 5024㎡를 증축해 연면적 1만779㎡로 확장하고 오래된 대합실과 승강장, 편의시설도 개선된다. 또 이용객이 많아 주로 새벽 시간에 공사를 해야 하는 여건을 감안해 공사기간만 36개월이 책정됐다. 하지만 공사업체 선정으로 1년을

허비했고 가까스로 선정된 업체마저 법정관리로 취소돼 7번째 선정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3월께 착공을 시작해 2029년 3월께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송정역 확장 공사 업체가 1년 만에 가까스로 선정돼 기대를 했는데 낙찰이 취소됐다”며 “올해 하반기 공사업체 재선정에 나설 것을 보여 확장공사는 내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송정역은 1913년 10월 보통역으로 출발했으며 호남고속철도 KTX가 운행을 시작한 2015년 4월2일부터 광주역 대신 지역을 대표하는 역으로 자리 잡았다. /김도기 기자

반도체 설계 등 5개 기업 광주 동지

광주시·5개 기업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등이 광주에 동지를 틀고 연구를 이어간다. 광주시는 팹리스 기업 디노티시아·아이닉스·쿠오핀과 정보기술 인프라 기업인 케이티엔에프·명인이노 등 5개 기업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5개 기업은 지역기업들과 협력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광주시는 인공지능 인프라 지원, 전문 인재 양성, 관련 기관·기업 연계 등을 추진한다.

팹리스 기업은 거대언어 모델(LLM), 영상신호처리(ISP), 영상전송, 원격관제에 특화된 반도체 개발과 미래모빌리티, 제조업 등 광주시 주요 산업과 융합해 기술 혁신 및 양질의 일자리 등을 제공한다. 정보기술 인프라기업은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제품 실증에 필요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 강기정 시장은 “5개 기업의 기술력이 광주의 인공지능 인프라, 정책과 만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지역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광주, 모기 퇴출 방역단 편성

취약지역 집중 소독

광주시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출몰하고 있는 모기 퇴출을 위해 방역단을 편성하고 취약지역 소독에 나선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66개반 150여명 규모의 방역단을 편성해 공중화장실과 하수구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 3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3월 해빙기 기간 동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유충 서식지에 대한 선제적 방제를 마쳤다. 기온이 상승하는 4월부터는 하절기 방역소독 체계를 가동 중이다.

외국인 주민 의료서비스
단체 운영비·통역 지원

광주시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약제비와 운영경비, 의료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와 광주고려인진료소, 브릿지의료인회 등 3곳이다. 광주시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시비 8500만원을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고려인 등),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1차 진료, 건강상담, 물리치료, 투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선주 기자



전남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김영록 지사가 21일 영광 스포티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서 7년 간 싱크홀 154건 발생...광산구 61건 최다

남광주역·월곡동·비아동 구시가지 집중

최근 7년 간 광주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154건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6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필순 광주시의회 의원(광산구3)은 21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 현황을 바탕으로 제작한 ‘광주 싱크홀 지도’를 공개했다. 7년 동안 광주에서 총 154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인적피해는 2건, 차량피해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6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31건, 서구 27건, 북구 22건, 남구 13건 순이다. 남광주역(9건)과 급남로4가역(4건) 등 도시철도 역사 인근과 광산구 월곡동(10건), 비아동(9건), 화정동(9건) 등 구시가지 지역에 싱크홀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초지반단체장은 싱크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한 건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위험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전 대응과 중점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는 노후 하수관과 지하 도시철도 건설이 겹치는 등 지반 침하에 취약한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취약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공개된 안전지도를 활용해 시민들과 함께 대응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올봄 전남 초미세먼지 평균 전국 ‘최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분석

올해 전남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국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기간 전남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4.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광주는 같은 기간 19.8㎍/㎥를 기록, 전국 평균 농도(20.3 ㎍/㎥)를 밑돌았다.

광주·전남 지역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비교해 좋음일수(15㎍/㎥ 이하)는 68일에서 71일로 3일 증가했다. 반대로 나쁨일수(36㎍/㎥ 이상)는 7일 줄어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환경청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 강화된 배출농도를 설정해 운영했다. 대기감시 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김 호 기자

전남, 장애인 날 행사...권익 증진·사회통합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서 기념행사

전남도가 21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함께 나눴다. 전남도와 영광군이 공동주최하고, 전남장애인의 날 공동추진위원회(지체·시각·농아)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도의회 의장, 장세일 영광군수, 이계호·서미화 국회의원, 장애인과 가족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행사는 장애인 사물놀이와 난타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합평영화학교 학생들의 장애인 인권편

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하, 장학금 기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 극복과 사회 참여에 적극 나서 나이에 관계 없이 수여하는 ‘전남도 장애인 상’ 시상식에선 작가 30년 이상 활동 중인 박영실 화가가 대상을 받았다. 그는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면서도 41~4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2022~2024년 청와대 장애인예술인 특별전 참여, 제3회 대한민국 장애인사에대선 대상 수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영실 화가는 “그림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자 삶의 기쁨”이라며 “이번 수상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장애인에게 전하는 응원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호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